

주민 안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정재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47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정재환, 박경흠, 이명녀,
홍영진, 김태욱, 김도운,
문희성, 강혜순, 안영호

1. 주 문

옛 삼호교 붕괴로 인해 중구·남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광역시는 안전한 대체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보행 데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중구청은 이를 위해 울산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보행 전용 교량이었던 옛 삼호교가 침하 되면서, 중구 다운동과 남구 무거동을 연결하던 보행 통행로가 장기간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나.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대체 통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중구와 남구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는 차량 전용 교량인 삼호교를 이용하거나, 동선이 크게 우회되는 신삼호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특히 보행 약자들의 이동권과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 다. 주민들은 옛 삼호교 복구 장기화에 따른 대안으로 삼호교에 보행 전용 데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라. 옛 삼호교는 중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해 온 교량으로 본 사안은 재난·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울산광역시가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중구청과 협력하여 안전한 대체 통행로 확보와 조속한 복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결의안을 제안함.

3. 송부대상 :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4. 결의문(안) : 붙임

주민 안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무너진 옛 삼호교의 대체 보행로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보행 전용 다리였던 옛 삼호교가 붕괴된 이후 6개월 넘게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중구와 남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옛 삼호교는 중구 다운동과 남구 무거동을 잇는 사실상 유일한 보행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붕괴사고 이후 별도의 대체 통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다운·태화동 일대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는 차량 전용 다리인 삼호교를 위태롭게 오가는 실정이다. 이는 남구 무거동 일대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보행로가 마련된 신삼호교를 이용할 경우 원래 가던 길보다 동선이 2배 이상 길어지며 최소 15분 이상 시간이 지체돼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에게는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구와 남구 주민들은 옛 삼호교 복구 장기화에 따른 대안으로 삼호교 차도에 보행 전용 데크 설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울산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데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옛 삼호교가 불가피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행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구될 때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임시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무너진 옛 삼호교가 중구와 남구를 잇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재난 대응의 성격이 강한 만큼 울산시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에 떠넘기기보단 시비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재원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구청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가 추경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1만 중구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는 울산시가 더 이상 주민 안전을 볼모로 예산과 행정 절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시는 옛 삼호교의 안전한 대체 통행로 확보를 위해 삼호교 차도에 보행 데크가 설치되도록 즉각 나서라.

하나, 중구청은 울산시가 올해 추경예산에 보행 데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등 행정 노력에 나서라.

하나, 울산시와 중구청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삼호교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2월 9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